예술이 된 '금강경'

'금강경' 사랑한 석호 스님의 100편의 노래

시집간 금강경
석호 응송
도서출판 연화
1만5000원

〈금강경〉은 32분 5149자로 이뤄져 있다. 경전은 부처님과 장로 수보리와의 대화로 구성돼 있다. 그 가운데 부처님 교설의 핵심을 노래한 것이 사구게이다.

사구게는 슬로카(sloka)라는 인도 시(詩) 형식으로 8음절을 1구로 해 4구 즉, 32음절로 된 게송을 말한다. 게송은 범어 가타(gatha)의 음역으로 부처님 공덕이나 교리를 찬탄 요약한 것을 말한다. 대개 네 구절로 돼 있기 때문에 사구게라고 말한다.

이런 가운데, 〈금강경〉 모두를 시로 읊은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대구 앞산 시방사에서 전법활동 중인 석호 스님은 최근 〈시집간 금강경〉을 펴냈다. 책은 〈금강경〉 32분에 대한 감응을 100편의 현대시 형태로 노래한 작품이다. 책은 〈금강경〉의 난해함을 시적 언어와 현대적 소재를 통해 쉽게 풀고 있다.

저자는 책에서 꽃수를 놓듯 한 땀 한 땀 〈금강경〉을 시로 읊고 있다. 시 속에는 철물점 아저씨, 화가 이중섭,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스 등이 등장해 〈금강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저자는 "필자는 단지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수행자의 한 사람으로서 〈금강경〉이 보다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썼다"고 말한다.

저자는 소명태자(501~531)의 한역본을 바탕으로 책을 쉽게 쓰는데 가장 큰 공을 기울였다. 수보리가 보살의 지위였다는 사실에서 범부인 독자들을 배려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또, 세친의 〈금강경〉 주석서인 27단의설을 축으로 삼아 내용을 펼쳐 나가고 있다. 27단의설은 경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부처님 설법 사이사이에 일으키는 27가지 의심을 말한다.

특히 책은 〈금강경〉 해설서임에도 〈금강경〉 원문을 수록하지 않고 있다.

저자는 "글을 전개하면서 표현 방식이 다를 뿐 원문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있어 원문을 따로 실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또, "독자가 너무 분석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다 보면 도리어 난해함에 부딪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책을 송차(松茶)에 빗댄다.

"지리산 토굴에 사는 한 도반스님이 손수 담근 거라면 보내온 송차를 마시다보니 어느새 취했다. 차로 알고 마셨으니 차가 맞는 것 같은데, 마시고 난 뒤 취했으니 술인 것도 같다. 송차인가? 송주(松酒)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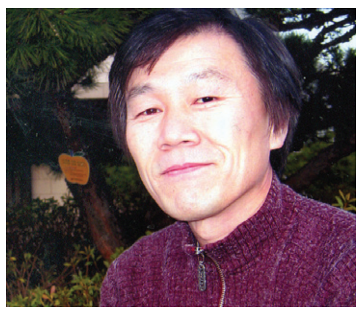
저자는 "책에 담긴 글들이 번안물인지 창작물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부처님 말씀인 경을 보고 썼으니 '번안'이라 해야 맞는 것 같고, 차를 마시고 취한 것처럼 경을 보고 난 감응을 노래했으니 '창작' 이라해야 옳은 것도 같다는 설명이다.

책이 번안인지 창작인지, 책을 보고 판단해 보자.

조동섭 기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율 1위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42.6명이 자살하고 있다는 대한민국이 우리가 사는 사회이다.

〈구하지 않는 삶, 그 완전한 자유〉를 펴낸 적천 윤기붕 선생도 한때 스스로를 정죄하는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수없는 자살에 대한 생각과 눈물로 자신을 한탄하고 쥐어뜯던 과거가 있었다.

당시 저자는 매일 같이 자살을 꿈꾸면서도 죽지 못하는 자신을 또 뜯으며 4개월을 보냈고, 어느 날 문득, "이 모든 것이 '생각' 하나가 짓고 있다"는 각성이 일어났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 그러면서 자신이 추악하다는 것 역시 생각,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발버둥조차도 생각이라는 각성…. 오직 그냥 생각일 뿐이라는 '생각' 에 다다르자 고통이 사라졌다고 회고한다. 그리고 그 생각의 속성을 깨닫고 자유를 얻어 그 행복을 독자들과 나누고자 책을 쓰게 됐다고 말한다.

저자는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설명한다.

허공과 같이 모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질 수 있는 바탕인 텅 빈 마음과 그 위에 인연 따라 생겨 떠도는 일희일비(一喜一悲) 하는 분별하는 마음이 그것이다.

분별하는 마음은 우리 감각기관과 대상과의 인연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허상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허상인 것을 모르고 진짜라고 착각한다. 그것에 속아 울고 웃는다.

저자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이 마음 때문이다. 우리가 즐거운 것도 이 마음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일체를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 깨달음의 삶이 펼쳐진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참된 양식은 자신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아니, 자신에게 이미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토록 못나고 부족하고 보잘 것 없어 보였던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래야 고된 인생 여행을 멈출 수 있고 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인연에 의해 죽을 때까지 산다. 죽을 때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죽을 인연이 돼야 죽는다. 그것이 자살이라고 해도…."

'오직 생각일 뿐' 깨닫자 고통 사라져
인연따라 떠도는 분별심에 속아 울고 웃어
매일 자살 꿈꾸다 행복 · 자유 찾은 체험기

저자는 지혜로운 자는 인연을 받아들이며 살아간다고 말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에게는 아무 번뇌가 없단다.

달마 조사도 "사람들은 사물을 따르지 않고 마음을 따르기 때문에 번뇌와 고통이 온다"고 말했다.

저자는 "사람을 따른다는 것은 인연을 따른다는 것이고, 마음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따른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욕심을 아무리 내어도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곳은 우리는 인연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의해 살아지는 것.

저자는 말한다.

"악다구니처럼 애를 쓰고 악을 쓰면서 살려고 하지 마라.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살아간다. 한 생각만 바꾸면 아주 행복하고 즐겁다."

저자는 강조한다. "이 책을 읽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자신의 우물을 발견한 독자들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놓아라.
구하지 마라.
분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지금 있는 그대로가 바로 깨달은 모습이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란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정말로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게 되면 겸손해진다.
그리고 삶이 자유로워진다. 사랑이 생긴다.
그 외,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생겨난다.
먼저 자신이 완전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본문 중에서

구하지 않는 삶, 그 완전한 자유 | 적천 윤기붕 지음 | 비움과 소통 | 1만4000원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7~3/13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2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3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4	마음수업	이광정	휴
5	불교와 과학 진리를 논하다	사이토 나루야 외	운주사
6	백일법문(상)	성철	장경각
7	무문관 참구	장휘옥, 김사업	민족사
8	인생을 낭비한 죄	박원자	뜰
9	돈, 섹스, 전쟁 그리고 카르마	데이비드 로이	불광출판사
10	젊은 날의 깨달음	혜민	클리어마인드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사랑하는 동물 잃은 슬픔과의 조우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동물 영혼 메시지

살아있는 동물만이 아니라 세상을 떠난 동물들과 대화가 가능한 세계적인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로렌 맥콜.

〈영원한 선물〉은 동물들이 경험하는 삶과 죽음, 윤회 등에 관해 동물들의 말을 그대로 들여주는 책이다. 책은 세상을 떠나는 과정에 있는 사랑하는 동물 때문에 고통스럽거나 사랑하는 동물을 잃고 애통해 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자유로움과 생과 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랑의 영속성을 느끼게 해주며 큰 위안을 준다.

영원한 선물 | 로렌 맥콜 | 이정아 옮김 | 서현사 | 1만원

조동섭 기자

말하면 이뤄지는 원리를 담다

〈소리와 음악의 신비〉는 '하즈랏 이나야트 칸의 수피 메시지' 시리즈 제2권의 개정 증보판이다. 책에는 음악 소리 언어 말의 힘에 관한 수피의 통찰력이 담겨 있다. 역자들이 책을 번역함에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 구술했던 저자의 생동감을 최대한 살리려 애쓴 것도 돋보인다.

책을 읽다보면 말과 말의 반복의 가치와 힘에 대해 배우게 된다. 수피의 가르침에서 불자들은 독경이나 다라니 수행이 어떤 구조로 영험이 따르는지 알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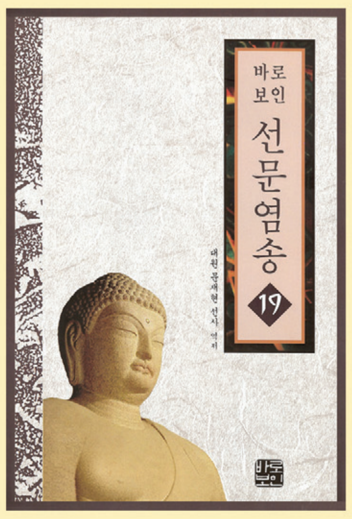
저자는 말한다.

"반복의 또 다른 효과는, 말에는 우주의 영이 반영돼 있고 그 뒤에는 우주적인 메커니즘이 그 말을 자동적으로 반복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말을 반복하면, 그 뒤에 신이 그것을 반복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모든 존재계 안에서 실현되고 하나의 실재가 될 때까지."

소리와 음악의 신비 | 하즈랏 이나야트 칸 지음 | 황정선 · 이정은 옮김 | 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쉬람 | 1만5000원

조동섭 기자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9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중 19권 출간!
홍화선사, 관계선사, 설봉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3칸겹집 목조건물 : 9500×7000×4500㎜ / 가격 : 평당 150만원
다그라스목재기둥 180×180×2470 / 다그라스목재도리 170×170
다그라스목재서까래 100×100 / 목재판재 120×18 전통강판기와
주춧돌 300×300×300 ※ 황토흙 ALC블럭 내화벽돌 판넬 자유 선택
원하는 평수 가능
토목공사 부가세별도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조립식 평상 : 1800×1030×400㎜
~~가격 29만원~~ → 할인가 19만원
부가세 운송비 별도
폴리프로필렌 자재 기둥 110×90×400 / 도리 80×35 / 중간대 80×35 / 마루판 210×12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지 구 산 업
www.bangaro.com / 방갈로.com
TEL 063)323-3011~2 / FAX 063)323-3010